

중국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 육성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은영 (liey@kdb.co.kr)

- ◆ 최근 미국의 對中 견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 육성을 가속화
- ◆ 중국 정부는 첨단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주요 전략 산업에 종사하거나 반도체와 같이 자국이 특히 취약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인재, 기술 자원을 적극 지원
- ◆ 전정특신 기업의 성과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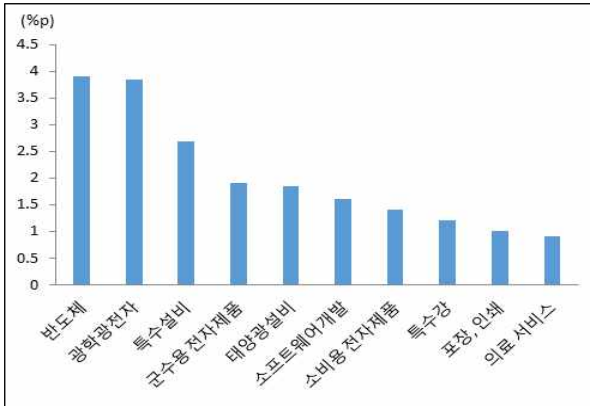
□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전정특신 기업 육성을 가속화

-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은 전문화(專), 정밀화(精), 특성화(特), 혁신성(新) 등을 갖춘 강소기업이라는 의미
 - '11.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문건을 통해 '전정특신'의 개념을 처음 언급
 -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18년 공업정보화부의 "전정특신 기업 육성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
 - '21.12월 발표한 "14차 5개년 중소기업발전촉진규획"에 따르면 '25년까지 100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인큐베이팅 → 중견 역량을 갖춘 10만개의 성급 전정특신 중소기업 → 핵심 역량을 갖춘 1만개의 전정특신 소거인(小巨人) 기업 → 1,000개의 챔피언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등의 對中 견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정특신 기업 육성에 주력
 - '21.7월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회의에서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및 병목 해결의 일환으로 전정특신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전정특신 기업 선정시 중국 제조업 공급망의 약점 보완 및 강점 강화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 '22.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최초로 전정특신 기업이 언급되며 자금, 인재,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의 강력한 지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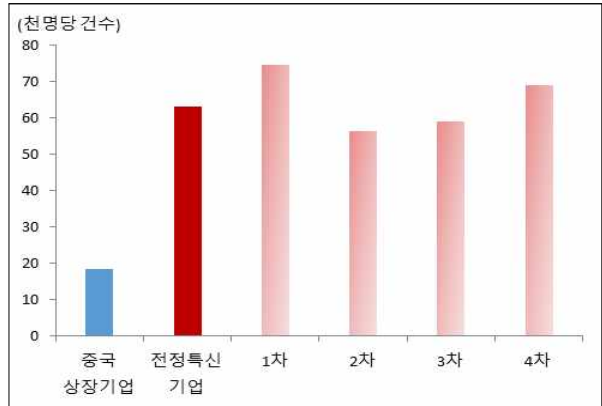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제조업 세부 분야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인재·기술 등 각종 자원을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에 집중

-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으로 '19년 1차 248개, '20년 2차 1,744개, '21년 3차 2,9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2.8월 4차로 4,357개사를 선정(총 9,279개사), 이미 '25년 1만개 육성 목표에 근접
 - 첨단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산업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업종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인 반도체 비중 상승
 - 전정특신 소거인 중 61%가 제조업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첨단 신소재, 5G, 친환경 및 스마트 자동차 기업이 각각 2,242개, 941개, 892개로 44% 차지
 - 특히 최근 선정된 4차 전정특신 소거인 중 상장기업 기준 1~3차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은 반도체로 3.9%p 상승
 - 전정특신 소거인의 기술개발 역량은 중국의 일반 우량기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종업원 천명당 유효특허권발명 건수는 63개로 중국 상장기업의 3.4배

4차 전정특신 소거인 업종별 비중 증가 TOP 10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의 유효특허권발명 규모



주 : 상장기업 기준, 1~3차 대비 업종별 비중 증가폭
 자료 : FOSUN HANI Research



자료 : PatSnap; 央广网

- 중국 정부는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 중 1,000여개 우수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 아래 장려금 지원 명목으로 '21~'25년간 중앙재정 100억위안(약 1.9조원) 이상을 편성
 - 지방정부도 전정특신 소거인 선정기업에 최대 100만위안(약 1.9억원)의 장려금 지급
-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은 대출, 벤처투자 유치, 주식 상장 등에서도 유리
 - 정부 산하 기관과 은행간 협력 등을 통해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
 - * '22.9월 장시은행은 장시성 공업정보화청과 MOU를 맺고 '전정특신' 전용 상품을 출시, 무담보, 높은 신용한도(1,000만~5,000만위안), 우대금리, 상환 유연성 등의 4대 원칙 하에 향후 3년간 최소 1,000억위안(약 19조원) 상당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19.7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중국판 나스닥인 키텐반 상장기업 중 전정특신 소거인 비중은 49%에 달함

- 국가급, 성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 인재, 기술 자원이 소거인을 포함한 전정특신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

* 각종 정보, 투자자, 창업, 기술혁신, 시장개척, 법률자문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서비스 센터. 국가급 시범 플랫폼은 약 300개로 매년 공업정보화부가 선정

- 면대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기술혁신, 주식 상장 지도, 혁신 성과의 전환 및 응용,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개조, 지식재산권 응용 등을 지원

□ 전정특신 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국산화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최근 전정특신 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차보즈(卡脖子)', 즉 중국 산업을 압박하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산화를 진전시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

* 반도체 나노화 공정의 필수 소재인 연마용 CMP 슬러리 제조사 Anji Microelectronics Technology, 로봇 감속기 업체 Leaderdrive, 바이오의학, 디스플레이, 체외진단 분야의 주요 소재인 나노, 마이크로 스피어 생산 기업 Suzhou Nanomicro Technology 등은 차보즈 기술 분야의 대표 기업

- 전정특신 기업들은 민영기업이 다수이며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상하이자동차 등 제조업 선도기업과 연계성이 높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

- 레노버캐피털, 화웨이허블, 샤오미창업산업펀드, 상치자본이 투자한 기업 중 전정특신 소거인 및 중소기업 비중은 '22.6월 기준 29%, 27%, 24%, 22%
- 전정특신 소거인 4차 선정업체 중 민영기업 비중은 84%에 달함

- 중국의 주요 제조업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 및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은 우리의 대중 수출품을 대체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 심화를 야기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요소